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영광군, '숲속의 전남' 만들기 우수기관 선정

상장·상사업비 1천5백만원 수상 영예



영광군은 전남도가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7년 숲속의 전남 만들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24일 전남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숲속의 전남 만들기 4차년도 다짐대회에서 상장과 상사업비 1천5백만원 등을 수상받았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도지사로 재임 시 '가득있는 섬'과 '숲속의 전남'을 도

지사 2대 브랜드 시책으로 추진하여 급년에 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평가는 산림·조경·경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전남도 내 22개 시·군에서 추진한 산림정책 중 경관숲, 소득숲, 주민참여·시류관리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서류·발표·현장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영광군은 경관 숲으로 물무산 행복숲, 주민참여 숲으로 산하리 고향마을, 소득 숲으로 정근나무 산업화를 추진하여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 같은 우수한 산림정책은 영광군의 산림가치를 극대화해 입암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성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산림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장성읍 중앙로, '홀짝제' 시행으로 질서 잡는다

군, 버스터미널~장성읍사무소 구간 위반차량 계도 및 단속

장성군이 2016년부터 시행해 온 장성읍 중앙로 홀짝 주차제 운영을 강화한다.

장성군은 최근 경찰서와 119안전센터, 모범운전자회 관계자들과 함께 '중앙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회의'를 갖고 그동안 계도 수준에서 운영해 온 중앙로 홀짝제(홀짝수 날에 따라 주차를 도로 한쪽만 허용하는 제도)를 보다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성군은 앞으로 장성군과 경찰서가 단속반을 합동으로 구성해 평일에 3시간씩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홀짝제를 무시한 상습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또 불법 주차차 단속할 인원을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확충하여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장성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방차량 통행을 막는 불법 주차차 문제도 함께 이슈가 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계속 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읍 중앙로는 주요 상가와 관공서가 밀집해 있는 중심 시가지나 2차선으로만 이어져 차량 운행뿐 아니라 불법 주차차량으로 인해 보행자 또한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장성군은 지난 2016년부터 장성군청부터 장성역까지 약 300m 구간에 한해 '면면주차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후 알기 쉽게 '홀짝제'로 이름을 바꾸고 구간은 장성읍사무소~장성터미널로 확대해 운영해 왔다. 지난해 9월에는 군민들이 주차차 가능 차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로 양쪽에 전광판 24개를 설치해 주민 혼란을 최소화했다.

장성군은 그동안 위반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 조치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뒀었다. 현재 도입 2년차에 이른 중앙로 홀짝제에 대한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보고 상습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 조치를 해 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홀짝제는 2차선으로 된 좁은 시가지에 주차질서를 정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며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장성군은 오는 4월부터는 홀짝제 운영 구간을 반구다리 회전교 차로부터 삼지공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장성=반정모 기자

함평군, 이·미용업 대표자 위생 및 친절서비스 교육



함평군은 지난 24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이·미용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위생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미용업 종사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절, 정

결 등 쾌적한 위생업소 환경 조성 등을 통한 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군은 이번 교육이 공중위생관리법과 이·미용업에 대한 위생관리, 친절서비스 등 현장에서 직접 적용

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도 예시와 함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위생교육에 참석한 안 군수는 "형소 소외계층을 위해 미용서비스 등 재능기부에 동참하는 이·미용협회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고객이 다시 찾는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에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함평군 미용협회(회장 최영아)는 자발적으로 소외계층을 위해 꾸준히 복지시설 9개소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미용서비스를 펼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함평=김광훈 기자

구례군,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경제교육'

구례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23일 초등학교생 아동 35명을 대상으로 'KSD 나눔재단(한국에탁결재단)'과 연계하여 '신용이야기'라는 주제로 경제교육을 진행하였다.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한 이번 교육은 올바른 신용관리를 위하여 신용의 개념과 신용등급 관리법 등을 교재 및 교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아동은 "친구가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적이 종종 있었는데 오늘 배운 신용에 대해 꼭 알려주고 싶다"며, "신용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보성군, 온라인 쇼핑 '보성물' 운영자 교육 실시

농가·입점업체 대상 전자상거래 전략 및 판매기법 진행



보성군은 민중 대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지난 25일 못재에서 농특산물 생산농가, 입점업체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물 '보성물' 운영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농특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자상거래 전략 및 판매기법 교육을

통해 안정적이고 탄탄한 보성물 운영을 위하여 마련됐다.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마케팅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보성물 판매자 관리 프로그램과 운영, 농가별 상세페이지 리뉴얼 제작, 우체국 전자상거래 등록 안내 등을 진행했다. 지난해 5월 오픈한 '보성물'은 보성의 맛과 멋과 향이 담긴 친환경 상품으로 70개 업체, 370여의 제품이 등록되어 있다.

설을 앞두고 내달 18일까지 전 품목 10%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 회원은 2%의 적립금과 최대 20% 할인혜택, 10만원 이상

구매자에게는 예코백을 증정하고 있다.

또한, 10년 연속 고품질 브랜드 쌀로 선정된 '녹차미인 보성쌀'을 비롯해 자연에서 정성스럽게 키운 찰다래와 토마토, 벌교고추, 낙지 등 농여가의 정성을 듬뿍 담은 풍성한 선물세트가 구비되어 있다.

아울러, 녹차와 차 연관제품, 농특산물 공품브랜드 '비비보'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과 미용, 공예품 등의 제품을 체계적이고 엄선된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이 부담없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차별화된 고흥 우주 콘텐츠, 수학 여행지로 각광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우주 체험시설의 차별화된 우주 콘텐츠 및

관광자원이 수학여행지로 각광 받고 있다. 작년 한 해 우주관련 교육 체험 등을 목적으로 고흥군을 방문한 체험형 학교 여행단이 2만4천여명에 육박하면서 전년 대비 7,300명이 증가하였고 소록도 우주센터·우주과학관을 방문하는 당일 체험객도 만 9천여 명에 이르며 2016년

보다 천 8백 명이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교육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이 증가하고, 체험과 오락, 추억이 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우주센터·우주과학관등 우주체험시설과 소록도 등의 자연 관광자원을 가진 고흥군이 수학여행단에게 매력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학여행 활성화 여건을 기회로 삼아 고흥군은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올해 순차적으로 완공되는 마리아나 마켓 봉사학교 선별리 콘도를 통해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 숙박시설을 갖추게 되어 군의 관광인프라는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승호=전남동부취재본부장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행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경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의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